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초보자로서 마음공부를 어떻게…

질문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고자 집에서 혼자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법문을 듣고 마음공부를 한번 해 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부처님의 경을 뚫어지게 위로 꿰고 아래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문제점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자기가 있는 데, 부처님은 바로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내기 이전 본래면목에, 그 실상에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까 당신에게 일임합니다.' 하고 놔 버리는 그런 자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신이 형성시켜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놔라 하는 것입니다. 부어도 부은 사이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처로 알고 항상 일체를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간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울던 것도 웃게 되고, 만약에 운다 할지라도 그건 값비싼 눈물이 될 것이고 값비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즐거움도 거기서 아마 샘솟듯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해 놨는데 그것이 영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데다가 다시 지금 착한 마음으로 착한 도리의 녹음을 한다면 그 앞서 뭉쳐서 녹음됐던 것은 바로 없어지고 말죠. 사대 오온이 다 공했으니 자기도 공하고 세상도 공했어요. 그러니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다시 놓으면 바로 그것은 테이프에 녹음되었던 것이 다시 없어지듯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녹음했다 없애고 했다 없애고 하는 반복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공한 데서 나온 거 공한 데다 놔야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에이구, 될 대로 돼라. 난 착하게 하는 사람 더 잘사는 사람 못 봤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어.' 한다면 안 됩니다. 착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고 악하게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둑질을 길게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는 법, 착한 일을 길게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꼬리가 밟힙니다. 사람이 꼭 악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일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저지르는 일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고등 동물이 돼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회 상식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이, 녹음이 지워지면서 새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녹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바로 그 앞서 거는 없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주인공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른 거라면 다시는 앞으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다 하고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해 놔라 이겁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놔라. 안 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몰라서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몰락,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 놓는 거를 다, 잘한 것도 감사하게 놔라 이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대로, 팔자 운명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앞서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거기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너만이 되게 할 수 있어. 안 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러고 오로지 거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입력이 새로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좋게 살 수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전에는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에다 무조건 맡기면 입력이 좋은 입력으로 되고,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을 모르든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부치고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남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자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거라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거기에 맡겨 놔 보고 실험을 해 보세요, 그게 체험이 안 되나 되나. '주인공이시여!'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근본이 당신이니까. 주인공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이 형성시켜 놨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생각을 안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임시키세요.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